제목: "AI 20년 연구한 뇌과학자가 챗GPT 쓰는 법" (김대식 교수) 영상을 보고 (부제: AI 시대를 살아남기 위한 실천적 활용법)

I. 서론: 실용적 해법을 찾아서

‘AI와 미래’라는 주제의 과제를 받고, 처음에는 막연한 두려움과 기대감이 동시에 들었다. 시중에는 AI의 경이로운 능력을 조명하거나, 반대로 일자리의 종말과 같은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그리는 자극적인 콘텐츠가 넘쳐났기 때문이다.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님의 이 강연은 단연 돋보였다. 이 영상은 ‘그래서 우리는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가장 근본적이고 실용적인 질문에 정면으로 답하고 있었으며, 이것이 내가 본 강연을 깊이 있게 분석하게 된 이유이다.

II. 본론 1: AI 시대의 생존 전략 (영상 요약)

김대식 교수가 강연에서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는 명확했다. AI 시대를 위협하는 것은 AI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AI를 나보다 먼저, 더 잘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한 내 경쟁자’라는 것이다. 그는 이 무한 경쟁 시대의 생존 전략으로 AI에 대한 ‘직관’을 기를 것을 추구한다. 이 '직관'은 이론 공부가 아닌, 마치 ‘자전거 타기’처럼 직접 부딪히고 실패하며 체득해야 하는 감각이다. 그는 단순히 AI를 검색 도구나 말동무로 사용하는 것은 AI 능력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이 직관을 기르기 위한 세 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정보 생성을 넘어 '실행'을 명령하는 ‘AI 에이전트’의 활용, 둘째, 코딩 지식 없이 말로 앱을 만드는 ‘바이브 코딩’의 경험, 그리고 셋째, AI 기술로 ‘5분짜리 단편 영화’를 제작해 보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AI가 만들어낸 수천 개의 결과물 속에서 '좋은 것'을 골라내는 인간 고유의 ‘판단력’을 기르는 것이다.

III. 본론 2: 두려움에서 도구로 (나의 감상 및 고찰)

영상을 보며 가장 깊이 공감한 지점은 ‘자전거 타기’ 비유였다. 사실 그동안 AI를 ‘공부’해야 할 거대한 학문처럼 여겨 막연한 부담감을 느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강연에서 들은 책으로 100번 공부하는 것보다 ‘넘어져 본 경험’이 중요하다는 말은, AI가 암기할 대상이 아니라 경험해야 할 ‘도구’라는 인식을 심어주며 심리적 부담감을 크게 덜어주었다. 물론, 교수가 제안한 ‘바이브 코딩’이나 ‘단편 영화 제작’ 같은 경험들은 비전공자로서 여전히 높은 심리적 장벽으로 느껴졌다. ‘코딩’이나 ‘연출’은 전문가의 영역이라고만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고양이 사진으로 테트리스 게임 만들어줘"라는 예시를 통해, 과거와 달리 '말로 표현'만 할 수 있다면 나도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다. 이는 '판단력'의 중요성에 대한 교수의 통찰과도 이어진다. AI가 모든 것을 대체할 것이라는 두려움과 달리, 오히려 AI는 인간 고유의 '취향'과 '선택', '방향성'을 더욱 중요하게 만든다. AI는 할루시네이션(환각)을 일으킬 수 있고, 사용자의 기분을 맞추려 아첨도 하기에, AI의 결과물을 맹목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 이는 마치 나무를 베기 위해 칼을 쓸지, 도끼를 쓸지, 톱을 쓸지 결정하는 작업자의 판단과도 같다. AI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 도구를 선택하고 최종 결과물을 책임지는 것은 결국 인간이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좋은 것'을 골라내는 인간의 판단력이야말로 AI 시대의 진정한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깊이 동의했다.

IV. 결론: AI라는 자전거에 올라타기

결론적으로, 이 강연은 나에게 AI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오늘 당장 무엇을 시도해볼까’하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바꾸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AI를 잘 쓰는 경쟁자’에게 밀려날 것을 걱정하기보다, 그들보다 먼저 AI라는 자전거에 올라타 넘어져 보는 경험을 쌓기로 다짐한다. 배움은 이제 '지식의 축적'이 아닌 '경험을 통한 직관의 획득'이 되었다. 우선 교수님이 제안한 3가지 경험 중 가장 접근하기 쉬운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바로 이 과제의 자료 조사를 맡겨보는 것부터 실천에 옮기며, 나만의 'AI 자전거' 타기를 시작하려 한다.